

‘공공 배달앱’ 도입 수년째 “검토중”

어제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정책토론회 “인구수·사업체 수 등 고려해 신중 기해야” 의견도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목표로 ‘공공 배달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공공 배달 앱 도입 여부와 필요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28일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격차와 비대면 경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코로나

19 시대, 디지털 격차 문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제발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례가 소개됐다.

공공 배달앱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의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입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형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대구의 공공배달앱 ‘대구로’, 경북도의 ‘떡깨비’, 군산 ‘배달의 명수’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은 저렴한 중개수수료와 소비자 할인 쿠폰,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경쟁력으로 내걸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 내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현재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중개수수료 1%, 광고비 무료 혜택 뿐 아니라 지역화폐 연계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서 지난 23일 기준 전체 회원수 53만4000명, 누적 주문 수 236만 건으로 누적 거래액 6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도는 외식업계 등으로부터 공공배달앱 출시 요구가 잇따르면서 도입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배달앱 관련 TF를 구성해

공공배달앱 도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선 경기도와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 수와 사업체 수 측면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내 공공배달앱 도입 여부 결정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해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플랫폼 관련 지역 배달앱 구축 사업’ 추진을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검토만 할 뿐 실제 도입이 요원한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배달앱 구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배달특급 배달앱 플랫폼 공유를 통해 제주지역에 배달앱이 구축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까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월 13일 제주서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관위, 본경선 일정 확정

국민의힘이 내달 13일 제주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권역별 합동토론회 일정 등 본경선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8일 2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자 8인 중 본경선에 진출할 4인을 결정한다. 본경선은 후보 4인이 참여한 가운데 권역별 합동토론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합동토론회는 10월 11일 광주·전북·전남을 시작으로 13일 제주, 18일 부산·울산·경남, 20일 대구·경북, 2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7일 강원에서 개최한다. 10월 31일에 최종적으로 합동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열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토론회 횟수는 총 10회 이상 실시하되, 각 후보 간 정책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대일 맞수토론회’도 3차례 포함한다. 4인의 후보가 2명씩 일대일 토론을 벌이는 맞수토론회는 15, 22, 29일로 잡혔다. 맞수토론회 대진표는 4강 진출자가 확정되면 추첨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기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권역별 합동연설회 대신 권역별 방송토론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경우 11월 1~2일 모바일투표, 11월 3~4일 ARS 투표를 각각 실시하며, 일반 여론조사는 11월 3일과 4일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11월 5일 정당대회를 통해 최종 당 대선후보를 지명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조기털기 작업하는 어민들 28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어민들이 조업중 그물에 걸린 조기를 털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시 초지면적 매년 100ha 가까이 감소

2011년 9543ha → 2020년 9월 8698ha로 845ha 줄어 농경지 전용·대단위 사업 등 영향... 실태조사 착수

농경지 전용과 대단위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제주시 지역 초지가 2011년부터 매년 100ha 가까운 면적이 사라지는 등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

대의 초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 제주시 초지 조성지(8698ha)는 전국 초지면적(3만 2556ha) 대비 26.7%에 이른다. 제주도 전체 초지면적 1만5675.8ha의 5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시 초지 면적은 지난 2011년 9543ha에서 2020년 9월 까지 9년 사이에 무려 845ha 면적이 감소했다. 해마다 100ha 가까운 면적이 사라지면서 초지의 불법전용 방지 등 보전관리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2년간만 하더라도 2018년 8884ha에서 2019년에는 8758ha로 무려 126ha가 감소했다. 이어 2020년 9월에는 전년에 비

해 60ha 줄어 전체 초지면적은 8698ha로 파악됐다.

이처럼 매년 큰 폭으로 초지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농경지 조성과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대단위 개발사업, 농어촌관광시설 같은 공공용 목적시설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초지 불법전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제주시 지역 초지불법전용은 1039필지·501.4ha에 이른다. 이 중 58건·104ha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시는 이와 관련 30일부터 10월말까지 한달간 초지관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또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가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yhle@ihalla.com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유찰

도 “환경공단과 방안 모색”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재공고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제주자치도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탄기방식 입찰 재공고를 28일 마감한 결과 단 한 곳도 입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재공고에 지원한 업체들을 평가해 서류 등에 하자가 없을 경우 5개월 동안 기본설계를 하도록 하고 내년 2월 최종 입찰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유찰이 되면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886억원을 투입해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입찰을 마감했으나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첫 시행하는 고난이도 공사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짧고 공사비도 초과될 것이라 분석을 제기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공사기간에도 하수를 처리하는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무중단공법에 부담이 많아 이같은 결과와 나온 것 같다”며 “환경공단과 협의하면서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르기자

도, FTA기금사업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0년산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FTA 기금사업) 연차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우수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년(87억원) 대비 25% 증액(22억원)된 109억원의 국비를 추가 배정받게 됐다. 제주도는 내년 FTA기금 지원사업에 올해 사업비(437억원)보다 109억

원이 늘어난 546억원(기금 109억, 지방비 182억, 융자·자부담 255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FTA기금 지원사업 신청은 10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장소는 지역 농·감협의회다. 신청대상자는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과 사업시행주체 참여조직이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상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정전기수도배관 누출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한가위맞이 사은대행사!!
선착순, 20만원 상당 녹음증정

9월 한달간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취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시외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총돌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시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검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센터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을·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애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감소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달팽이추출물 핵심기술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4+수소물질8중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잔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Cocoly Powerful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켜며 식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